

거역 (민수기 14:1-10)

오늘 말씀은 거역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자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안간다고 밤새 통곡했다. 슬픈일인데,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고 좋은 결정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다. 우리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통해 우리는 먹고 살고 있다. 대부분 직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일 전혀 하지 않고 시대적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운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다. 거기를 보면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유효하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멈추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절대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흐름을 반드시 타야 한다. 만일 이 흐름 밖에 있다면 믿는 자로서 슬픈 일이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은 수없이 듣는데, 아직도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약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것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영적 상태에서는 바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오면 자리를 잡게 되어 있고 든든하게 되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발견되어 지고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된다. 그리고 훈련을 예사로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우리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가 끝이 아니다. 2부 예배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기 나올 것이다. 만일 우리가 24시가 된다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영적인 상태가 완전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다 바뀐다. 이것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라. 너는 내 백성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런 것은 놔두고 인생만 바꾸기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란다. 말씀을 그냥 듣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역사 일어나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복의 축복이다. 인생을 정복해야 된다. 인생에 놀려 있으면 안된다. 문제에 놀려 있으면 안된다.

1. 거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우리 죽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온갖 불신앙의 소리를 한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 주셨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결정하셨다. 왜냐면 너희들은 싫어하니까. 그리고 능히 들어가서 이길수 있는 증거를 계속 주었는데도 계속 울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라고 하였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백성의 행동을 보고 거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다면 대단한 것이다. 통곡을 했다. 이유는 상관이 없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절대 양보할수 없는 시대적인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와 상관없이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거역이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대체하겠는데 그것도 안된다. 다른 길도 없고 외길이다. 거기 가는 것 뿐이다. 어디로 피해서 갈수 있는 길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남미 끝까지,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말을 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운명이었다. 고생만 하는 운명이 아니라 그거 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대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다. 너희가 다 죽어도 나는 이 일을 양보할수 없어. 그 메시지이다. 너희가 아무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데모를 해도 필요없다. 나는 못 바뀌, 그건 안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라. 이것이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논리와 똑같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이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도 소용없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신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도 막다른 골목이다. 자기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한 자기 백성이다. 그런데 안간다고 밤새도록 울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몸만큼 사랑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도 어쩔수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양보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복음화의 개념이다.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를 메시지에서 많이 듣는다. 절대 계획은 이런 것이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어쩔수 없다. 나는 거기에 가야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하나님의 흐름을 거역하면 나만 손해본다. 40년간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좀 봐줬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린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후대가 올라올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양보할수 없는 일이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역한 그들에 대한 기대는 일단 하나님이 접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고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고 모세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참다가 참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포로로 가라. 우리는 누구나 237, 5000종족 이 흐름을 타야 한다.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만 하는 것도, 중직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여기에 올라타야 한다. 이것이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이 반드시 여기에 줄 서야 한다. 창녀가 이 흐름을 탔다. 인생 역전 일어나버렸다. 라합이야기이다. 한나가 어느날 이것을 깨달았다. 시대적인 인물의 어머니가 되었다. 우리 어머니들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다. 항상 고개 들고 다닌다. 그런 영적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3남 2녀 더 낳았다. 아들이 없어서 평생 그것만 기도하는 여자였다. 출애굽 하는 그 날 이 흐름을 방해하고 막아선 애굽과 애굽왕 완전히 박살났다. 그 정도 되었으면 회개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따라왔다. 하나님은 흥해에 빠뜨려 전부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애굽의 무기도 싹 다 주장시켜 버렸다. 그래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최고의 강대국이였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방해하면 미국 망한다.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해야 한다.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해야 하고 내 돈을 내가 포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왜 그러는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천국가면 알 것이다. 능히 이해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리고 성 전쟁 다 알고 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도 다 죽였다. 어린애도 필요없고 아이벤 여자도 필요없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은혜 안된다고 듣기 싫어하는 성도도 있다.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뒤서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잘 안한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우

리가 알아야 한다. 절대 양보 안한다.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러나 양보 못해. 너희가 여기서 죽어라. 여하튼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양보 없다. 우리의 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보했다. 이미 모든 죄, 지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양보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세계복음화 양보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굳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거기에 다 들어가시기 바란다. 전부 다 축복받는다. 틀림 없다. 이것은 안하고 축복만 주세요? 류목사님 메시지에서 사기라고 했다. 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언약을 지켰으면 솔로몬시대와 같은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빈틈없이 했으면 솔로몬 같은 세계복음화 싹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상숭배를 했다. 극도로 했다. 다 잡혀 갔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했다. 이제 포로로 가라. 바벨론 선교를 해야 할 시간표는 다가오고 이 선교를 해야 할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는커녕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밀리고 밀리고 또 밀려서 더 이상 밀릴데가 없어. 그래서 결단 한 것이다. 할수 없이 포로로 보내어 세계복음화한 것이다. 그 때도 자기 백성들 많이 죽었다. 전쟁은 지금은 총쏘고 죽으면 그 순간 죽지만 전에는 칼 찔려서 죽었다. 여자들이 굉장히 당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여자들. 아이들도 수없이 죽었다. 우상숭배의 댓가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세계복음화이다. 세계복음화 안한거, 거기에 방해 되도록 우상으로 간 것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성경에 이것 예레미야, 이사야 통해서 짝 써냈다.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써냈다. 다 읽어보고 참고하고 내 뜻이 이러하니까 너는 너 뜻을 포기하라 이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거절하면 안된다. 내가 죽는다. 세계복음화 거역하면 안된다. 내가 죽는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상관 없다. 세계복음화에 줄셔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대로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누구든지 백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 안된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한다. 그리스도.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100프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안된다. 사단이 막고 있다. 마음에 나는 세계복음화 안되어 있다면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하지? 그건 아니다. 사단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 들은지 적어도 27년 이상 되었다. 처음 세계복음화 안 들어왔다. 처음 내가 여러분 만났을 때에도 세계복음화 아니었다. 나는 그냥 와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지 하고 내댄에는 한다고 했는데, 안되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누릴수 있는 조그만 발버둥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시기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신 언약이 있다. 전에는 이런 언약 나도 달라고 기도 많이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도 안되는데 이걸 주면 어디로 튈것인가? 현장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는가? 그리스도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남미를 두고 기도한 교회가 미국에 몇군데 있다. 죄송한 말인데, 지속은 우리가 진짜 끝까지 할 것이다. 내 용기 아니다. 제자가 있다. 그 제자 밑에 진짜 가슴을 담은 제자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 나는 안간다. 안 가도 문 열린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 될 것이다. 그냥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도바울같이 조직이 형성된 전도를 해갈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내 언약이고 거기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어 주시는 현장 끝까지 전할수 있는 언약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나는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뜻 없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이 내 가슴에 안 들어왔다.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느껴졌고, 뜻이 있다. 나는 평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있다. 세계복음화 아무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앞에서부터 읽어가는데, 이 본문을 만나고 내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랑하신 백성도 죽이는구나. 니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내가 느꼈다. 이것이 하나님이면 우리를 깨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져야 한다. 조그마한 결정을 할 때에도 이거 놓치면 일단 옆길로 가게 된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수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 교회를 위하여. 아주 귀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결정인데, 그것이 237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종교이다. 이것 잊지 말아라. 자기 백성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밀리고 밀리고 참고 참고 해서 드디어 이걸 결정을 안할수 없어서 결정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한다. 미국 살려야 한다. 미국 교회에 복음을 일단 전달해야 한다. 아니면 뭐하려고 사는가? 기도해야 한다. 나는 리카르도 목사가 조그마한 틈으로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아리조나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다. 시작할 때, 문이 열려서 언약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눈

오늘 본문에 대한 다른 한면은 눈의 차이라는 것이다. 영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이 있는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다른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을 그 날도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었을 것이다. 참 그런데도, 육신의 눈 밖에 없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하늘에서 먹은 것이 내려왔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이다.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는데 이거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냥 한번 우는것도 아닌데 왜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 나도 그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하튼 애굽에서 일어난 일 믿음 필요 없다. 생각만 해도 되는 것이었다. 마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족보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족보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일 것이다. 믿음도 필요 없다. 숫자를 헤아려 올라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다윗 아브라함 나온다. 누가 너에게 믿으라고 하나? 이것은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것이다. 영안이 없는 바른 소리는 결국 악한 소리가 되어 버린다. 열정담군이 한 말도 옳은 말이 있지 않겠나?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람 소리로 끝난다. 결국은 방해된다. 무엇에 방해되는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맞는데 결국은 불신앙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열정담군이 한 일이다.

중직자, 교역자, 사역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데 눈을 떠야 한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계복음화를 선택해야 한다. 자기 영적 수준으로 이해 안될수 있을 것이다. 영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앞섰는가가 눈에 안들어온다. 분명 열정담군 뿐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옳은 소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옳은가 그른가로 선택하면 안된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될것이라 안될것이나? 모르는 일이다. 서론에 말한 것처럼 어느게 이익인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줄고 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나.

이번주 핵심메세지 서론에 보면 내 기준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고 했다. 내 기도의 기준이 내가 되면 기도가 기도역할 못한다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나 시공간 초월까지는 못가도 적어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언약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바른 기도 될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안이 중요하다. 영안이 어디서 오는가? 한군데에서 온다. 복음 누리는 데에서 이 영안이 온다. 이것 말고 다른데서 온 영안은 틀렸고 결국 사단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으로 영안을 자꾸 키워야 한다. 그 눈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내가 승리할 뿐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먼저는 나와 내 가정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가문과 지역을 살려야 한다. 미국과 남미를 살려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